

여수 화물연대 4일째 “운송거부”

운반코스트 대폭 인하에 반대 의사 ... 유가 반영시점 의견 충돌

여수 산업단지의 화물연대 조합원 170여명이 유가 하락에 따른 운반코스트 대폭 인하에 반대해 4일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여수운송협의회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1월9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조합원 170여명은 유가 하락에 따른 운반비 인하 폭을 둘러싸고 운송협의회 측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운반비를 산정하는 유가 기준시점을 운송협의회는 2008년 6월을 기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연대는 2008년 12월로 생각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여수 산업단지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운송협의회는 1월12일 오전 8시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에게 통보했다.

여수 산업단지 관계자는 “운송거부가 4일째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광양항 마린센터 앞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2>